

시의회 올림픽유치 지원
특위 업무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2036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제 3 차 회 의 업 무 보 고

11.16.(화)

관 광 체 육 국

(올림 픽 추 진 과)

서울-평양올림픽 유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2032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를 위한 추진 경과 및 2036 올림픽 유치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

I 주요 추진경과(서울시, IOC)

2032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제안

- ◆ 남북 정상 9·19 평양공동선언('18.9.19)
 -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 ◆ IOC 위원장-남북 체육장관(도종환 문체부장관, 김일국 체육상) 3자회의('19.2.15)
 -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남북 공동유치 의향 발표를 "역사적 제안"이라고 호평

□ 국내 법정절차 이행[2019년~]

- 대한체육회 국내 유치도시로 '서울' 선정('19.2.11) ※ 경쟁도시 부산
- 「2032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 시의회 가결('19.9.6)
- 서울-평양 공동유치·개최 추진계획 문체부('19.11.1), 기재부('20.2.20) 승인

□ IOC 지속협의 개시 및 범정부 협의체 가동[2020년~]

- 올림픽추진과(6팀, 25명) 신설('20.1.10)
- 범정부 '유치추진협의회' 장관·차관·국장급 전략 회의(총 8회) 진행('20.1월~)
- 서울시를 이해관계자로 인정하고 '지속협의' 절차 개시 통보('20.1.30)
- 서울시-민주평통·市체육회 MOU 체결('20.5.27) 및 컨퍼런스 개최('20.11.4/ '21.5.28)
- IOC 미래유치위원회에 서울시 준비현황 서신 송부('20.7.17)

□ IOC 지속협의 심화 및 관계기관 공조 활성화(2021년~)

- KBS 다큐멘터리 방영('21.2.20) 및 영문 홍보동영상 제작('21.5)
- 호주 브리즈번 '우선협상도시' 선정('21.2.25)에 대해 **유감표명 서한**(3.4)
- 비전·콘셉트 및 시설플랜 등을 담은 **남북 공동개최 유치제안서 제출**('21.4.1)
- 유치제안서 대로 최선 노력 표명한 **시장천서, IOC 위원장에게 전달**('21.4.23)
-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올림픽 유치지원 특위 활동 개시('21.5.4~)
- IOC 미래유치위원회와 **최초 화상회의 개최**('21.6.1/DDP)

□ IOC 총회, 2032 올림픽 '개최지'로 호주 '브리즈번' 결정(7.21)

- 단독 후보 '브리즈번'에 대한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찬성 72, 반대 5, 무효 3)

※ 2032 올림픽 개최도시에 대한 IOC 주요 심사 및 결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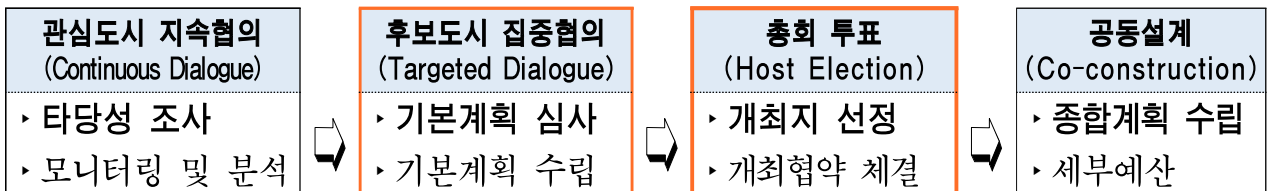
- ◆ IOC 집행위원회, **2032 올림픽 후보도시로 브리즈번을 추천하는 미래 유치위원회 권고**를 수락하여 **우선협상도시로 승인**('21.2.25)

- Brisbane 집중협의 승격 이유(IOC 미래유치위원회)

올림픽 혁신안인 IOC Agenda 2020에 부합, 기존 올림픽시설 80~90%이상 활용, 팬데믹 하 우수한 기후 여건, 도시 장기발전방향과의 높은 정합성, 압도적인 국내 지지여론 등

- ◆ IOC 집행위원회, '2032 브리즈번안' 승인 및 **총회 회부 결정**(6.10)

- 집행위원회에서 미래유치위원회 집중협의 평가결과를 만장일치로 수용
- 서울시에 양해 서한 송부(미래유치위원장→대한체육회장, 서울시장(참조))



II

개최지 결정 이후 후속 대책 협의

〈 올림픽유치추진협의체 회의 개요 〉

- ◆ 개최취지 : 2032 올림픽 유치 무산 이후 후속 대책 협의
- ◆ 기간/장소 : 9.13(월)16:00~17:00/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대회의실
- ◆ 참석자 : 문체부, 외교부, 통일부, 서울시, 대한체육회 국·과장 10명

○ (서울시) 올림픽 유치 지속 추진 입장 표명

- 올림픽 유치는 서울시장 공약사항으로 2036 또는 2040 하계올림픽 개최를 목표로 지속 추진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공동유치도 가능

○ (문체부) 그간의 유치노력 평가 후 향후 추진방향 재정립 시사

- IOC 변경된 절차로 유치결과 예측이 더 어려워짐. IOC는 올림픽 개최의 안정성 확보, 불확실성 회피 의지가 강하므로 남북관계의 유동성에 따른 북한변수의 통제 어려움에 곤란
- 국제 대회를 많이 유치하면서 장기적으로 역량을 쌓는 접근이 필요함
- IOC 지속협회는 정부차원에서도 필요하며 연도를 특정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서로 용인 하에 서울시 지속협의 유지 바람직
- 후속 회의에서 2036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내년부터 그 방향에 맞게 추진

○ (대한체육회) IOC 구미에 맞는 스포츠 친화도시 이미지 구축 필요성 제기

- 2036 경쟁도시가 많아짐에 따라 개최도시가 국제 행사를 많이 개최하여 인지도와 역량을 갖춰야하고, 점진적으로 스포츠 친화도시 이미지 강화 필요

○ (통일부) 새로운 남북공동 유치 방안은 북측과의 협의를 전제로 추진

- 남북정상 합의에 기초한 2032 서울-평양올림픽 유치 사실상 종료. 향후 올림픽에 대한 공동 유치 방안은 북측과 협의를 전제로 논의해야함

Ⅲ

2032 올림픽 유치 실패 원인 분석* 및 보완방향

□ 2032 올림픽 유치 실패 주요 원인 (※ 관련 용역 진행중)

○ 코로나19 불확실성 심화로 IOC는 올림픽 개최지 선정요건 중 '안정성' 중시

— 장기간 준비해온 호주에 비해 남북 공동유치라는 불확실성이 약점으로 작용

- 서울-평양 공동유치 리스크 요인 (IOC 미래유치위원회 → 대한체육회 서한('21.2.25))
북한과의 수차례 접촉시도 불발로 판단컨대 북한이 공동유치를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매우 큼. 한국의 지속적인 유치 관심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대화를 이어가길 희망

※ IOC, 브리즈번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선정사유로 교통·숙박·유치경험·정부의 강력한 지원 등 대회의 안정적 개최와 관련된 사항이 다수 포함

- Brisbane 집중협의 승격 이유 (IOC 미래유치위원회('21.2.25))
올림픽 혁신안인 IOC Agenda 2020에 부합, 기존 올림픽시설 80~90%이상 활용, 팬데믹 하 우수한 기후 여건, 도시 장기발전방향과의 높은 정합성, 압도적인 국내 지지여론 등

○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북 간 협의 정체 및 북측의 미온적 태도

— 남북관계 단절로 인해 올림픽 공동유치를 위한 세부작업 착수 곤란

- 북미-남북관계, 그리고 북한이라는 폐쇄적인 나라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상존하여 우리의 유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도 사실

○ IOC의 개최지 선정절차 변경 및 내부심사 강화에 대한 대응 부족

— 총회 경쟁 투표 방식 → 지속협의 등 미래유치위원회의 내부심사 중시, 각 국가의 유치활동이 금지되고 IOC의 내부 결정권한 강화

— IOC 의사결정 조직과의 네트워킹 등 스포츠 외교력이 중요

- "IOC가 브리즈번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 하였음"(독일올림픽연맹, '21.3)
- "올림픽과 관련된 공정성 논란 존재, 브리즈번이 경쟁 없이 2032 하계올림픽 유치권을 따낸 것과 존코츠 호주 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 겸 IOC 부위원장이 바호 위원장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이 연관이 없다고 하기 힘들"(스위스 유력 일간지 NZZ, '21.8.6)

○ 추진체계 분산에 따라 일관된 올림픽 유치활동 제약

- 올림픽유치위원회 구성없이 범정부 협의체 등 비상설 유치추진체로 운영, 기관 간 합의를 위한 일정 지연, 정보 칸막이 존재 등 역기능 초래

구 분	구 성	비 고
문체부	2명(서기관, 주무관)	해외올림픽 참가 업무와 검업
통일부	1명(사무관)	남북체육교류 업무와 검업
외교부	1명(사무관)	문화, 체육관련 국제업무와 검업
서울시	6명(현재 사무관2, 주무관4)	올림픽 유치업무 수행
대한체육회	3명(팀장, 과장, 사원)	국제교류업무와 검업

○ 남북정상간 합의에 따른 Top-down방식으로 올림픽 유치 당위성 확인 미흡

- 남북공동 개최에 대한 국민관심도 제고 및 유치 공감대 확산이 어려웠음

□ 2022년 보완방향

○ 올림픽 개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 북한의 참여를 열어놓되 IOC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최방식 도입
- 미래유치위원회와의 꾸준한 지속협의 진행으로 IOC의 신뢰와 지지 확보
- 지속적인 국제스포츠 대회 및 행사 유치를 통해 ‘국제스포츠 도시, 서울’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지도 제고

○ 올림픽 유치 추진체계 일원화로 추진동력 극대화

- 정계·재계, 관계 부처 및 시민사회단체 주요 인사를 주축으로 2036올림픽 유치위원회를 조기 구성하여 유치 동력 분산문제 해결

○ 올림픽 유치 당위성을 반영한 명확한 비전 제시로 시민 공감대와 지지 확보

- 긍정적 파급효과를 설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 기회와 정보 공유의 장 마련

IV

향후 추진계획

□ 올림픽 유치를 위한 향후 대응 전략 수립

- 2032 올림픽 유치 실패에 대한 원인분석 등을 토대로 **서울시의 대응 방안을 수립**(’21.10월~’22.1월)
- 향후 **서울시에서 개최 가능한 국제스포츠 경기 또는 이벤트를 발굴하여** 올림픽 유치 여건 조성
 -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를 위한 국내외 여건 조사 용역 진행(’21.11월~’22.6월)

□ IOC, 대한체육회, 문체부 등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추진

- **IOC 미래유치위원회와의 지속 협의를 유지**하여 서울시 올림픽 유치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지속적으로 어필하고 신뢰관계 공고화(상시)
-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 유관 기관과의 국장급 유치추진협의회 개최**로 원활한 올림픽 유치 활동 전개(’21.11월말)

□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서울 개최

〈 ANOC 총회 개최 개요 〉

- ◆ 회 의 명 : 제26차 ANOC총회 ※ ANOC(Association of National Olympic Committees)
- ◆ 기간/장소 : ’22.10.14.(금) ~ 10.20.(목) / 코엑스 컨벤션센터 등
- ◆ 참가규모 : 206개국 1,500여명(보스바흐 IOC 위원장, 집행위원 IOC 위원, 각국 NOC 대표 등)
- ◆ 주요내용 : 총회, 집행위원회·분과위원회 회의, 대륙별 회의 등
- ◆ 주최/주관 :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 서울특별시, 대한체육회



- ANOC 총회 개최를 계기로 IOC위원, 각국 NOC 대표 등 국제스포츠계 정상급 인사들을 대상으로 **‘차기 올림픽 개최도시 서울’** 이미지 각인
 - IOC 위원장 면담, 총회 기조연설 또는 환영 만찬 통해 유치의지 피력 및 스포츠 외교력 발휘
- **감추경된 ANOC 총회 예산(1,250백만원) 확보안 마련**
 - 올해 25차 ANOC 총회 취소에 따른 예산 감추경(’21.9.3) 이후 내년도 26차 총회 서울 개최가 결정(10.25)되었으므로 신규 예산 확보 필요